

문화일보 클리닉 엑스포 개최

본 협회 무료 혈당측정

병원의 전문화, 선진화와 대중화를 목표로 열리는 국내 첫 병원 축제형 박람회인 '2007 문화일보 클리닉 엑스포'가 9일 오후 1시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9일 오후 3시 열린 개막식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영선 의원,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 서울시 병원협회 허춘웅 회장(명지성모병원 원장), 국립암센터 유근영 원장, 인제백병원 중앙의료원 이원로 의료원장, 강서제일병원 송상호 원장, 편강한의원 서효석 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김문식 원장,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배금미 상무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대학병원을 포함한 15개 병원과 비브라운 코리아,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등 40여개 건강 의료업체,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노인정신 의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해 12일까지 열리는 '2007 문화일보 클리닉 엑스포'는 개막식에 앞서 문을 연 오후 1시부터 관람객들로 부스마다 붐볐다. 이날 관람객은 오후 5시까지 2000명에 달했다.

각 병원의 부스에서는 간판급 진료과목 상담 및

특수장비검사를 이용하기 위해 관람객들이 줄서 기다리는 등 무료진료와 검사, 상담이 이뤄졌고 의료업체의 부스에는 의로기기나 건강증진을 위한 제품들이 선을 보였다.

인제대 백병원은 심전도검사를 비롯, 혈압검사, 체지방검사, 혈당검사를 예약한 이용객들에게 무료로 실시해 관람객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온 박승규(75)씨는 "병원진료 행사소식을 듣고 혈압이 걱정돼 혈압을 측정하고 의사와 상담을 했는데 약을 복용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사 답변에 안심했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골다공증 비만, 체지방, 체수를 한번에 측정하는 체성분분석검사가 눈길을 끌었다. 배가 많이 나와 상담한 서경화(여·78·일산 동구 장항동)씨는 "영양팀장으로부터 밥과 육류를 줄이고 밥을 국에 말아먹지 말라는 권유를 받았다"며 "친구와 함께 행사장에 왔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도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연세대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방문객들에게 척추자세 교정



방법을 설명해주고 골다공증 측정검사를 실시해 주었다. 건국대 병원은 환자의 다리와 어깨에 대해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대기자들을 위해 '외과의사 봉달희'드라마를 방영해주었다. 관절재활센터와 인공관절수술로 관심을 끈 강서 제일병원은 관절염 자가진단과 골다공증검사를 실시했고 의사는 만보기를 제공하며 운동처방을 내렸다. 로봇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이춘택병원원 CT촬영후 로봇다리로 환자에 맞는 인공관절을 빼

중간의 정·측면에 맞추는 수술에 대한 설명을 했고 관람객마다 움직이는 로봇을 신기롭게 여겼다. 이날 본 협회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무료혈당측정을 실시해주고, <월간당뇨>와 <당뇨소식>을 무료 배포, 당뇨관리와 비만관리에 도움이 되는 증정품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또 혈당측정 결과 그동안 당뇨인지도 모르고 지낸 사람들이 많이 측정되었으며 당뇨에 관한 자세한 상담과 조언이 이루어져 정기적인 혈당검사의 중요성을 알렸다.

한마음 산악회, 2007년 시산제 개최



(사)한국당뇨협회 산하 '한마음 산악회'의 2007년 시산제가 14일(수) 북한산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산행은 2007년에 들어 처음 시행되는 산행으로 산 중턱에 올라 당뇨인의 건강과 풍요로움, 당뇨협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시산제를 지냈다. 3월 산행에는 약 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해 겨우내 뭉쳐있던 몸의 근육을 풀어 주고, 당뇨관리에 관한 소식들을 다양하게 교류 할 수 있어 어느 산행보다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한마음 산악회의 총무임원을 맡고 있는 조기태 회원은 지난 겨울동안 감기에 걸려 고생했던 본인의 경험담을 회원들에게 발표해 감기약을 처방받을 때의 주의사항을 깨닫게 해주었다. 2007년 한마음 산악회는 서울의 명산을 찾아가는 것 이외에 걷기 좋은 코스를 선정하여 걷기운동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예정이다.

한마음 산악회 4월 산행

- 일시 : 2007년 4월 11일(수) 오전 9시 30분
- 목적지 : 독립문역~무악재역 걷기 (총 걷는 거리 - 6.9km / 총 걷는 시간 - 2시간)
- 점심 : 각자 준비 • 회비 : 10,000원 • 문의 : 협회사무국 (02) 771-8542